

2021-04

금융시장 브리프

2021. 04. 07.

- **백신 접종 가속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경기개선 기대로 4~5월에도 국내외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가겠으나, 2~3월에 비해서는 금리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미 연준, IMF 등 대다수 기관은 고용 부진과 경제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2~3월 중 미 국채금리 급등은 인플레이션의 전조이기보다 경기 개선세를 반영한 일시적 현상으로 평가
 - 한은과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한국 0.50%, 미국 0.25%)
 - 국고채 금리는 경기 회복,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국채수급 부담을 반영하여 완만한 오름세(국고 3년물 3월말 1.13% → 4월말 1.18% → 5월말 1.21%)
 - 선진국 국채금리도 백신 접종에 의한 경기 회복 기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발행물량 증가로 소폭 상승(미 국채 10년물 3월말 1.74% → 4월말 1.78% → 5월말 1.80%)
- **미국의 대규모 재정지출과 강한 경기 회복세를 반영하여 미 국채금리가 주요국보다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 원화와 여타 통화는 달러화 대비 소폭 약세를 나타낼 전망**
 - 원/달러: 3월말 1,132 → 4월말 1,135 → 5월말 1,140
 - 위안/달러: 3월말 6.55 → 4월말 6.57 → 5월말 6.60
 - 엔/달러: 3월말 110.7 → 4월말 111.0 → 5월말 111.3
 - 달러/유로: 3월말 1.174 → 4월말 1.172 → 5월말 1.170
- **2~3월 중 완만하게 상승했던 주가지수는 국채금리 급등세가 진정되고 경기지표·기업실적 개선세가 확인해짐에 따라 4~5월 중에는 오름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측**
 - KOSPI: 3월말 3,061 → 4월말 3,150 → 5월말 3,200
 - S&P500: 3월말 3,973 → 4월말 4,070 → 5월말 4,100

작성자: 경제·글로벌연구실 허문종 연구위원(02-2173-0568)
이다은 연구원(02-2173-0578), 박수빈 조사원(02-2173-0556)
책임자: 경제·글로벌연구실 권영선 실장(02-2173-0569)

I. 4~5월 금융시장지표 전망

1. 금리

가. 국내금리

■ 한국은행은 4.15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동결할 전망

- 수출·투자 중심의 경기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용·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
 - * 이주열 한은 총재는 코로나 감염상황이 빠르게 진정되어 그간 억눌렸던 수요가 분출할 경우 물가 압력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지금은 인플레이션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여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라고 언급(3.24일 기자간담회)
 - * 2월 국내 취업자 수는 코로나 확산세 지속에 따른 숙박음식·예술여가·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고용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47.3만명 감소(1월 98.2만명 감소보다는 완화)

■ 국고채 3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3월말 1.13% → 4월말 1.18% → 5월말 1.21%

- 경기 회복, 지표물가 상승, 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국채수급 부담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의 상승압력이 점증하겠으나, 한은의 국채 매입과 기관·외국인의 투자 수요로 금리 상승폭이 제한
 - * 3.26일 IMF는 2021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3.6%로 상향 조정(OECD 3.3%, 정부 3.2%, 한은 3.0%, 우리금융경영연구소 3.3%)
 -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1월 0.6 → 2월 1.1 → 3월 1.5
 - *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3.25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3.29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 전체 지원금 규모는 지출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20.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기존 정부안 19.5조원보다 1.2조원 증액)
 - * 한국은행은 시장금리가 급변동할 경우 기준에 발표했던 상반기 중 5~7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 외에 별도의 일회성 매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3.11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관련 기자설명회)

■ 국고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3월말 2.06% → 4월말 2.10% → 5월말 2.14%

- 경기 개선 기대, 추경 등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상승압

력이 우세하나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 부담, 한은의 국채 매입으로 금리 상승 폭이 둔화

* 10년물-3년물 금리 스프레드(bp): 2011.1.13일 107 → 2019.8.28일 6(단기 저점)
→ 2021.3.18일 102(10년2개월래 최대) → 3.31일 92

국내금리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2월	3월	4월(F)	5월(F)
기준금리	기말, %	0.50	0.50	0.50	0.50	0.50	0.50
국고채 3년	기말, %	0.98	1.20	1.02	1.13	1.18	1.21
국고채 10년	기말, %	1.71	2.15	1.96	2.06	2.10	2.14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3.19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3월 전망에 대한 평가(C등급¹⁾)

- 3월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13%로 전망치(1.04%)를 크게 상회
- 미국 등 주요국의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 개선 기대가 확산됨에 따라 해외 금리 급등에 동반하여 국고채 금리에 상승압력이 가중

나. 해외금리

■ 미 연준은 4.27~28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0.25% 상한)할 전망

- 연준은 평균물가목표제(Average Inflation Targeting) 도입을 통해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완전 고용, 물가상승률 2%)으로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장기간 유지할 방침임을 시사

* 연준은 3월 FOMC(16일-17일)에서 2021년 경제성장률(4.2% → 6.3%)과 물가상승률(1.8% → 2.4%) 전망치를 상당폭 상향 조정했으나, 고용·물가 지표가 목표치에 안정적으로 도달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직전(12월) 점도표와 동일하게 2023년까지 기준금리 동결 전망을 유지

■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3월말 1.74% → 4월말 1.78% → 5월말 1.80%

- 연준의 국채 매입, 단기금등에 따른 조정압력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가속화,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국채 발행물량 증가)로 국채금리 상승압

1) 대표 금리지표(국고채 3년)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bp 이하는 S등급, ±3bp 이하는 A등급, ±5bp 이하는 B등급, ±5bp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력이 점증

- * 바이든 대통령은 3.31일 1단계 인프라 투자계획(10년간 2.2조달러 규모의 물적 인프라 투자, 법인세 인상)을 발표하였으며, 4월에는 2단계 인프라 투자계획(1~1.5조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투자, 개인소득세 인상)을 공개할 예정
- * 미국 기대인플레이션율(BEI, %): 2013.4.26일 2.38 → 2020.3.19일 0.50(저점) → 2021.3.31일 2.37(7년 11개월 만에 최고치)

■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3월말 -0.29% → 4월말 -0.27% → 5월말 -0.25%

- EU 경제회복기금 집행,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으로 국채금리는 상승(마이너스 금리폭 축소) 압력이 우세하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이 금리 상승폭을 제한
 - * 유럽중앙은행(ECB)은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 규모를 1.85조 유로로, 기한을 2022.3월로 각각 유지한 가운데 최근 유로지역의 국채금리 오름세를 고려하여 1분기 보다 채권 매입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3.11일)
 - * EU 경제회복기금(Recovery fund)은 국가별 비준과 집행계획이 지연되면서 7월에 가서야 자금 집행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
 - * 독일 정부는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주별 시행령을 통해 전면 봉쇄조치(예: 사적 모임 5인 제한, 재택근무 의무화) 기한을 3.31일에서 4.18일로 연장

■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3월말 0.85% → 4월말 0.87% → 5월말 0.89%

- 백신 접종 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로 국채금리는 상승압력이 우세하나, 영란은행(BOE)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으로 금리 상승폭이 둔화
 - * 영란은행은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뚜렷한 경기 회복 신호가 나오기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기준금리 0.10%, 자산매입규모 8,950억 파운드)를 유지하겠다고 표명
 - * 영국 정부는 7월 말까지 전국민 대상 코로나 백신 1회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4.2일 기준 영국의 백신 1회 접종률은 46.3%로 세계 3위)
 - * 1월 對EU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37.7% 급감(20여년래 최대폭)하는 등 브렉시트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

■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3월말 0.09% → 4월말 0.10% → 5월말 0.11%

- 일본은행(BOJ)의 수익률곡선관리 정책 완화로 국채금리는 상승압력이 다소 우세하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금리 상승폭이 제약
 - * BOJ는 3.18~19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국채시장 가격 기능을 제고하고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10년물 국채금리 목표 밴드를 $\pm 20bp$ 에서 $\pm 25bp$ 로 확대
 - * 3.22일 도쿄도 등 주요 10개 자치구의 긴급사태 선언을 전면 해제한 이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3.27일~4.3일 평균 2,000명을 상회(4.3일 기준 2,751명)

해외금리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2월	3월	4월(F)	5월(F)
미국 기준금리	기말, %	0.25	0.25	0.25	0.25	0.25	0.25
미국 국채 10년물	기말, %	0.91	1.80	1.40	1.74	1.78	1.80
독일 국채 10년물	기말, %	-0.57	-0.20	-0.26	-0.29	-0.27	-0.25
영국 국채 10년물	기말, %	0.20	0.80	0.82	0.85	0.87	0.89
일본 국채 10년물	기말, %	0.03	0.13	0.15	0.09	0.10	0.11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3.19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 환율

■ 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원화 약세) 전망: 3월말 1,132 → 4월말 1,135 → 5월말 1,140

- 한국 수출 회복이 원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미국 경제의 상대적으로 강한 회복세, 4월 외국인 배당 역송금 수요로 향후 2개월간 원화 약세(달러화 강세) 압력이 다소 우세
 - * 3월 미국 ISM 제조업지수는 64.7로 3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3월 비농가 취업자수는 전월대비 91.6만개 늘어 7개월만에 최대폭 증가
 - * 삼성전자의 대규모 특별배당(10.7조원) 영향으로 외국인 배당이 7.7조원(지난해 1.4조원 대비 5.5배)으로 급증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원화 약세압력으로 작용

■ 위안/달러 환율 소폭 상승(위안화 약세) 전망: 3월말 6.55 → 4월말 6.57 → 5월말 6.60

- 중국의 견조한 경기 개선흐름, 외국인의 채권·주식 투자자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금리 상승, 외환당국의 위안화 강세 저지를 위한 시장개입을 반영하여 위안화 약세(달러화 강세) 가능성이 다소 큼

* 3.29일 FTSE러셀이 3대 채권 벤치마크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중국 국채를 편입하기로 결정(편입 비중 5.25%, 편입 이행기간 2021.10월부터 36개월)

■ **엔/달러 환율 소폭 상승(엔화 약세) 전망: 3월말 110.7 → 4월말 111.0 → 5월말 111.3**

- 일본의 무역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일 금리차 추가 확대, 긴급사태 조기 해제 이후 일본내 코로나 재유행으로 엔화 약세(달러화 강세) 압력이 지속
 - * 일본 무역수지(억엔): 12월 +7,510 → 1월 -3,239 → 2월 +2,174
 - * 일본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명, 기말, 7일 이동평균): 2월 1,033 → 3월 1,774
 - * 미국-일본 10년물 국채 금리차(bp, 기말): 1월 102 → 2월 125 → 3월 165

■ **달러/유로 환율 소폭 하락(유로화 약세) 전망: 3월말 1.174 → 4월말 1.172 → 5월말 1.170**

- 미국의 강한 경기 회복세를 반영한 미 국채금리 상승, 유로지역 내 코로나 재확산으로 유로화 약세(달러화 강세) 압력이 다소 우세
 - * WHO 유럽 지부장은 역내 백신 보급 상황이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더디다고 언급. 3월말 유럽의 1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의 10%, 2차 접종률은 4% 수준에 불과

주요국 환율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2월	3월	4월(F)	5월(F)
원/달러	기말, 원	1,087	1,100	1,124	1,132	1,135	1,140
위안/달러	기말, 위안	6.53	6.45	6.47	6.55	6.57	6.60
엔/달러	기말, 엔	103.0	108.0	106.6	110.7	111.0	111.3
달러/유로	기말, 달러	1.228	1.200	1.208	1.174	1.172	1.170

주1: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3.19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3월 전망에 대한 평가(A등급)²⁾

- 3월말 원/달러 환율은 1,132원으로 전망치(1,120원)를 소폭 상회
- 미국 경제의 상대적으로 강한 회복세와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으로 원화 약세(달러화 강세) 압력이 확대

2) 대표 환율지표(원/달러)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 이하는 S등급, ±3% 이하는 A등급, ±5% 이하는 B등급, ±5%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3. 주가지수

■ KOSPI 상승 전망: 3월말 3,061 → 4월말 3,150 → 5월말 3,200

- 2~3월 중 조정흐름을 보였던 KOSPI 지수는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 급등세 진정, 국내 수출·투자 회복세(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실적 개선), 추경 등 확장적 재정운용에 힘입어 4~5월 중에는 오름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 3월 수출은 15대 주력품목 중 14개 품목이 늘어난(반도체 +8.6%, 자동차 +15.3%, 석유화학 +48.5%)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16.6% 급증
 - * 코스피 개인 순매수(조원): 2021.1월 +22.3 → 2월 +8.4 → 3월 +6.9
 - * 12개월 선행 PER(기말, 배, Bloomberg): 2021.1월 14.1 → 2월 13.8 → 3월 13.5
- 국내 은행주는 대출과 배당 관련 규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재연장 등 정책요인에도 불구하고, 경기 개선에 따른 시중금리 오름세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KOSPI 대비 양호한 상승흐름을 예상
 - * 예대금리차(잔액기준, %p): 2020.10월 2.03(저점) → 2021.1월 2.09 → 2월 2.13
 - * 금융위원회는 3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4월로 연기했으며, 해당 대책에는 차주별 DSR 적용, 거액 신용대출 관리 강화(원금분할상환), 비주택담보대출과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
 - * 2.17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배당축소(배당성향 20% 이내로 제한) 권고와 관련하여 6개월 후 은행들의 자본적정성을 보고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힘

■ KOSDAQ 상승 전망: 3월말 956 → 4월말 980 → 5월말 1,000

- KOSDAQ 지수는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 급등세 진정, 한국형 뉴딜정책에 따른 관련 산업 수혜, 반도체·IT 기업의 실적 개선, 풍부한 시중 유동성에 힘입어 4~5월 중 오름폭이 다소 커질 것으로 예상
 - * 코로나 진단키트 등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19개월 연속 증가세(3월 +43.6%)
 - * 코스닥 개인 순매수(조원): 2021.1월 +3.5 → 2월 +1.1 → 3월 +0.7
 - * 금융위원회는 5.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대상으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의결(2.3일)

■ S&P500 상승 전망: 3월말 3,973 → 4월말 4,070 → 5월말 4,100

- S&P500 지수는 밸류에이션과 증세 부담이 상존하나 미 국채금리 급등세 진

정, 백신 접종 가속화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4~5월 중 오름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바이든 행정부는 중장기 시계에서 인프라 투자와 연계하여 증세를 추진할 계획이므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충격이 상쇄될 것으로 평가

*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8년간에 걸쳐 2.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기로 하고 재원조달을 위해 법인세(21% → 28%)와 개인소득세(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개인 소득세율 37% → 39.6%) 인상을 추진

* 3.25일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목표였던 취임 100일 내 1억회 백신 접종을 조기 달성함에 따라 목표치를 2억회로 두 배 상향 조정

국내 주가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2월	3월	4월(F)	5월(F)
KOSPI	기말	2,873	3,300	3,013	3,061	3,150	3,200
은행업 주가지수	기말	1,557	-	1,593	1,869	1,895	1,930
KOSDAQ	기말	968	1,020	914	956	980	1,000
S&P500	기말	3,756	4,070	3,811	3,973	4,070	4,100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3.19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3월 전망에 대한 평가(S등급)³⁾

- 3월말 KOSPI는 3,061으로 전망치(3,050)에 부합
- 국채금리에 연동한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에 의한 투자심리 회복, 국내 수출기업 실적개선 기대가 긍정적으로 작용

3) 대표 주가지수(KOSPI)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 이하는 S등급, ±3% 이하는 A등급, ±5% 이하는 B등급, ±5%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붙임1

3월중 국내금리 동향

- 3.2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한국경제가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하겠으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 보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언급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11bp 상승(2월 1.02% → 3월 1.13%)
 - 경기 회복 기대로 3.15일 1.24%까지 상승했으나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미 FOMC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로 3.25일 1.09%까지 반락
 - * 한국은행은 3.9일 2조원 규모의 긴급 국채매입을 실시하는 한편, 3.16일에는 통안채 발행 규모(2.8조원→1.4조원)를 줄여 시중 유동성 축소 우려를 완화
 - * 3.16~17일 열린 미 FOMC에서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재확인되고 긴축 전환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
-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0bp 상승(1.96% → 2.06%)
 - 미 국채와 연동하여 3.15일 2.15%까지 오름세를 보였으나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미 FOMC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장단기 금리차 확대 부담으로 3.25일 1.97%까지 하락
 - * 10년물-3년물 금리 스프레드(bp): 2011.1.13일 107 → 2019.8.28일 6(단기 저점) → 2021.3.18일 102(10년2개월래 최대) → 3.31일 92

국내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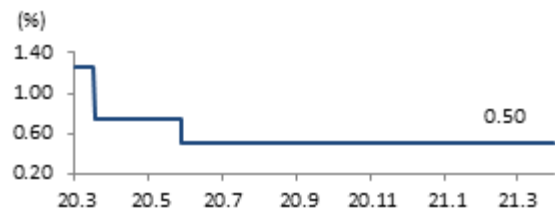
	단위	연간			분기				월간				
		2018	2019	2020	20.2/4	3/4	4/4	21.1/4	20.12월	21.1월	2월	3월	
금리	기준금리(기말)	%	1.75	1.25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국고채(3년, 기말)	%	1.817	1.360	0.976	0.842	0.846	0.976	1.133	0.976	0.971	1.020	1.133
	국고채(10년, 기말)	%	1.948	1.683	1.713	1.373	1.430	1.713	2.057	1.713	1.768	1.960	2.057
스프레드	국고3년-기준금리	bp	7	11	48	34	35	48	63	48	47	52	63
	국고채10년-3년	bp	13	32	74	53	58	74	92	74	80	94	92
	한국-미국(10년)	bp	-74	-23	80	72	75	80	32	80	70	56	32
	한국-독일(10년)	bp	171	187	228	183	195	228	235	228	229	222	235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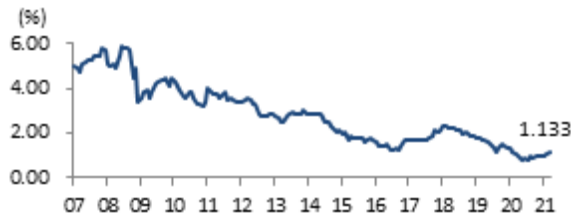
한은 기준금리(월간)



한은 기준금리(일간)



국고채 3년물(월간)



국고채 3년물(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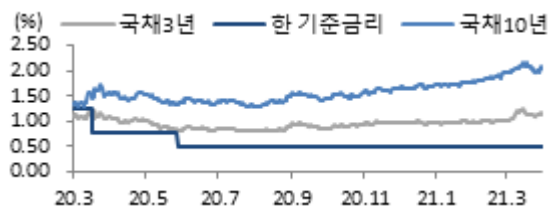
국고채 10년물(월간)



국고채 10년물(일간)



기준금리와 국고채 금리(일간)



장단기 금리차(국고채 10년-3년, 일간)



한국·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차(일간)



한국·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차(일간)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붙임2

3월중 해외금리 동향

■ 미 연준은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0.25% 상한)에서 동결

- * 미 연준은 3.16~17일 FOMC 회의에서 고용·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기준금리(0.25% 상한)를 동결(만장일치)하고, 채권매입 규모(국채 800억달러 이상, 정부기관 MBS 400억달러 이상)를 현 수준에서 유지

■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33bp 급등(2월 1.41% → 3월 1.74%)

- 바이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수급부담과 경기 회복 기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국채금리가 3.31일 1.74%로 14개월래 최고치를 기록

■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3bp 하락(-0.26% → -0.29%)

-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백신 접종 지연, ECB 팬데믹긴급매입 프로그램(PEPP)의 채권매입 가속화 등으로 금리가 소폭 하락
- *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는 독일의 코로나 확진자 중 영국발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비율이 88%로 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3bp 상승(0.82% → 0.85%)

- 백신 접종 가속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 영란은행의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 가능성 축소로 국채금리가 완만하게 상승
- * 영국의 3월 제조업 PMI는 58.9로 10년래 최고치를 기록

■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6bp 하락 (0.15% →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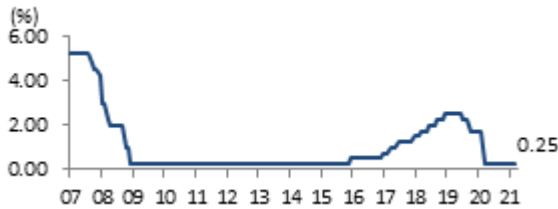
- 일본은행(BOJ)의 전반적인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국채금리가 반락
- * BOJ는 3월 통화정책회의록에서 일본이 미국, 유럽과 달리 디플레이션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장기간 유지하겠다고 언급

해외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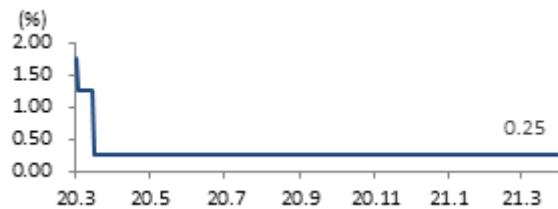
	단위	연간			분기				월간				
		2018	2019	2020	20.2/4	3/4	4/4	21.1/4	20.12월	21.1월	2월	3월	
미국	기준금리(기말)	%	2.50	1.7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국채(10년, 기말)	%	2.684	1.918	0.913	0.656	0.684	0.913	1.740	0.913	1.066	1.405	1.740
독일	기준금리(기말)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국채(10년, 기말)	%	0.242	-0.185	-0.569	-0.454	-0.522	-0.569	-0.292	-0.569	-0.518	-0.260	-0.292
영국	기준금리(기말)	%	0.75	0.75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국채(10년, 기말)	%	1.277	0.822	0.197	0.172	0.229	0.197	0.845	0.197	0.327	0.820	0.845
일본	기준금리(기말)	%	-0.10	-0.10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국채(10년, 기말)	%	-0.003	-0.028	0.026	0.035	0.026	0.093	0.026	0.026	0.050	0.153	0.093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준 기준금리(월간)



연준 기준금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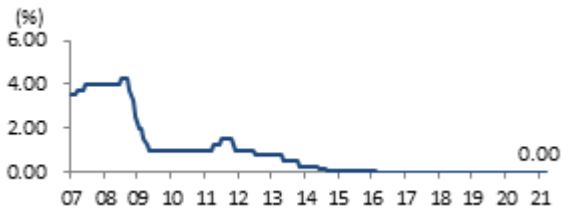
미국 국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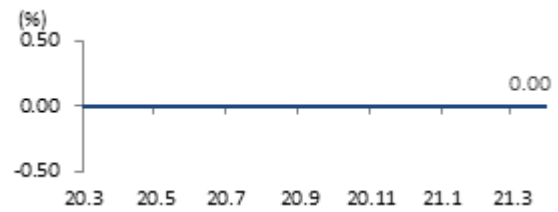
미국 국채 10년물(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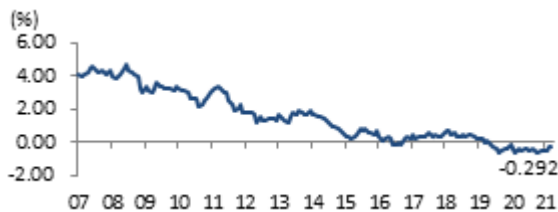
ECB 기준금리(월간)



ECB 기준금리(일간)



독일 국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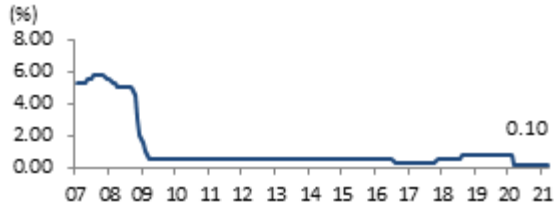


독일 국채 10년물(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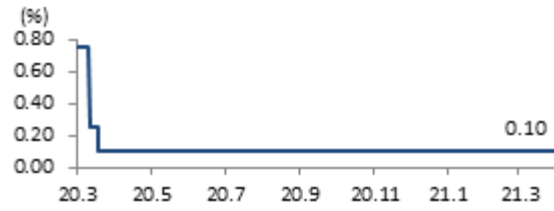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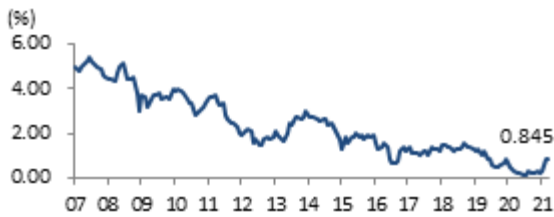
BOE 기준금리(월간)



BOE 기준금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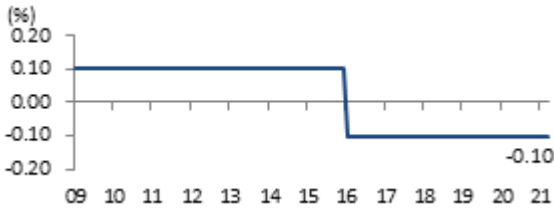
영국 국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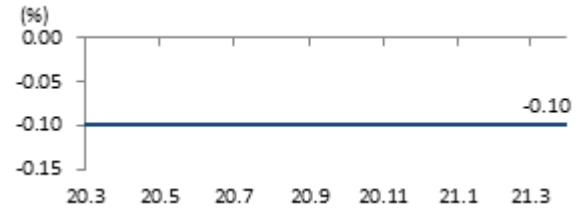
영국 국채 10년물(일간)



BOJ 기준금리(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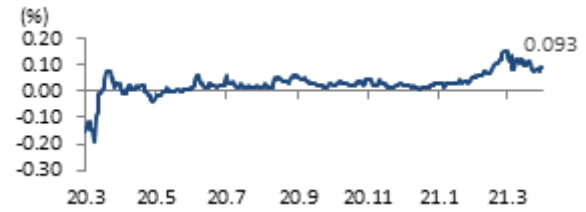
BOJ 기준금리(일간)



일본 국채 10년물(월간)



일본 국채 10년물(일간)



미국·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차(일간)



미국·일본 국채 10년물 금리차(일간)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붙임3 | **3월중 환율 동향**

■ **원/달러 환율은 전월말대비 0.7% 상승(원화 약세, 2월 1,124 → 3월 1,132)**

- 글로벌 달러 강세(달러인덱스 2월말 91 → 3월말 93)로 3.10일 1,143원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은 미 국채금리 진정, 3월 FOMC의 완화적인 정책 기조 확인,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자금 유입으로 3월 하순 들어 상승폭이 축소
 - * 외국인 국내채권 순증(조원): 1월 1.5 → 2월 10.0 → 3월 9.4

■ **위안/달러 환율은 1.2% 상승(위안화 약세, 6.47 → 6.55)**

- 글로벌 달러 강세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갈등 고조, 중국 외환당국의 위안화 강세 속도조절 움직임으로 위안화 약세(달러화 강세) 압력이 가중
 - * 3.18~19일에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은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며 공동성명 없이 종료되었고, 서방 국가들의 신장 위구르 인권문제 관련 제재 속에 미·중 긴장이 고조

■ **엔/달러 환율은 3.8% 상승(엔화 약세, 106.6 → 110.7)**

- 일본은행(BOJ)의 수익률곡선관리 정책 완화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금리 급등으로 미·일 양국 금리차가 확대됨에 따라 엔화가 가파른 약세를 시현
 - * BOJ는 3.18~19일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10년물 국채금리 목표 밴드를 기존 ±20bp에서 ±25bp로 확대함으로써 수익률곡선관리 정책을 일부 완화
 - * 미국-일본 국채 금리차(10년물, bp): 1월말 102 → 2월말 125 → 3월말 165

■ **달러/유로 환율은 2.8% 하락(유로화 약세, 1.208 → 1.174)**

- 프랑스·유럽 등 주요국의 코로나 확산과 봉쇄조치 강화, 역내 국가들의 더딘 백신 접종 속도, 미국의 상대적으로 강한 경기 회복세 등으로 유로화 약세(달러화 강세)가 지속

주요 환율

	연간			분기				월간			
	2018	2019	2020	20.2/4	3/4	4/4	21.1/4	20.12월	21.1월	2월	3월
원/달러(기말)	1,111	1,156	1,087	1,203	1,170	1,087	1,132	1,087	1,119	1,124	1,132
위안/달러(기말)	6.88	6.96	6.53	7.07	6.79	6.53	6.55	6.53	6.43	6.47	6.55
엔/달러(기말)	110.0	108.5	103.0	107.7	105.7	103.0	110.7	103.0	104.7	106.6	110.7
달러/유로(기말)	1.145	1.122	1.228	1.121	1.171	1.228	1.174	1.228	1.214	1.208	1.174
달러지수(기말)	96.2	96.4	89.9	97.4	93.9	89.9	93.2	89.9	90.6	90.9	93.2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붙임4 | 3월중 주가지수 동향

■ KOSPI 지수는 전월말 대비 1.6% 상승(2월 3,013 → 3월 3,061)

- 코스피지수는 미 국채금리 흐름에 연동하여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에 의한 투자심리 회복, 글로벌 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기업 실적개선 기대로 소폭 상승 마감
 - * 3월 중 주체별 코스피 순매수(조원): 개인 +6.9, 외국인 -1.2, 기관 -5.7
 - * 투자자 예약금(조원): 1월말 68.0 → 2월말 63.9 → 3월말 62.6
- 국내 은행주는 17.3% 상승(코스피 대비 15.7%p 초과 상승)
 - 시중금리 상승에 의한 실적 개선 기대, 외국인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KB금융(+28.3%), 하나금융(+15.5%), 신한금융(+13.7%), 우리금융(+5.4%)이 모두 상승
 - * 3월중 외국인 순매수(억원): KB 4,873, 신한 2,104, 하나 1,685, 우리 391
- 글로벌 Top 50 은행주는 5.5% 상승(아시아 Top 10 은행주는 3.8% 오름)

■ KOSDAQ 지수는 4.6% 상승(914 → 956)

- 코스닥지수는 미국 대규모 재정지출로 인한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코스피 대비 저평가 매력(연초이후 코스피 +6.5%, 코스닥 -1.3%), 경기 민감도가 낮은 주요 업종(콘텐츠 등)의 상승에 힘입어 큰 폭 반등
 - * 3월 중 주체별 코스닥 순매수(조원): 개인 +0.7, 외국인 -0.3, 기관 -0.4

■ 선진국(MSCI DM) 증시는 3.1% 상승한 반면, 신흥국(MSCI EM)은 1.7% 반락

- 유럽(+7.8%), 미국(+4.2%), 일본(+0.7%) 증시가 올랐으나, 중국(-1.9)은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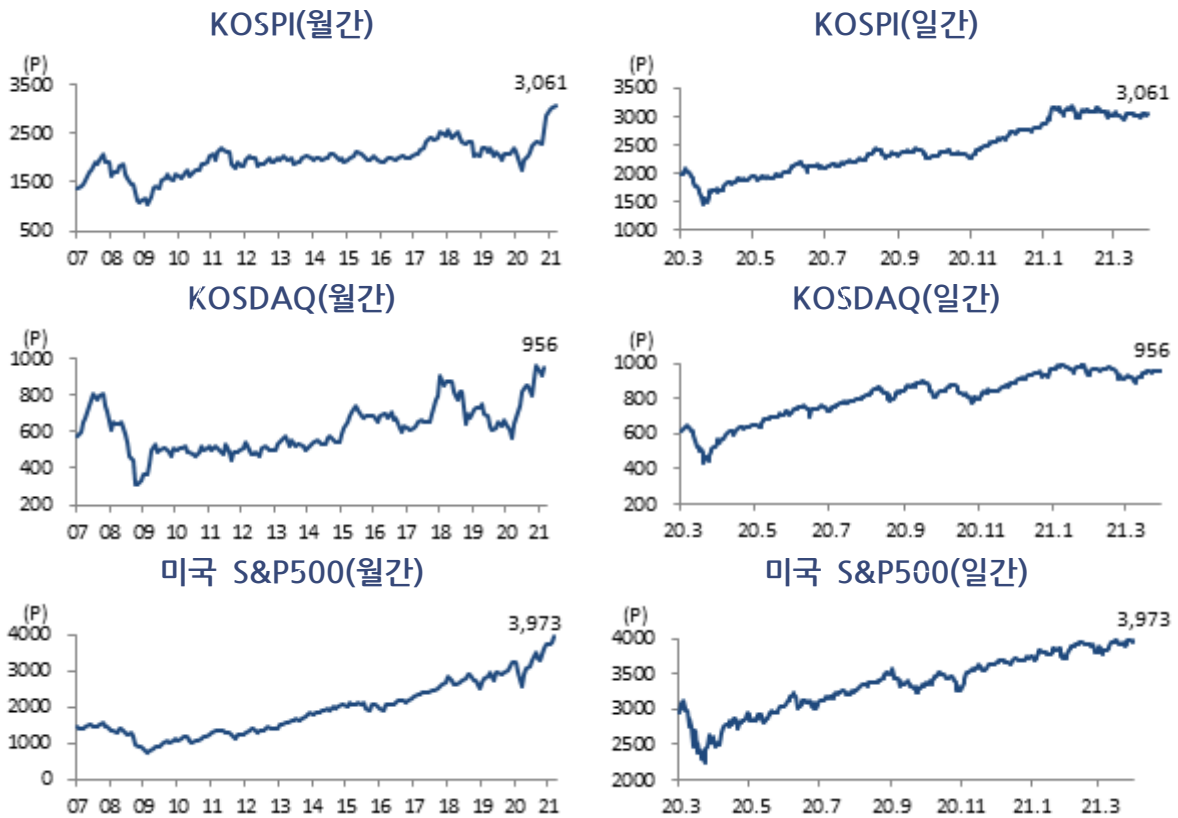
■ S&P500 지수는 4.2% 상승(3,811 → 3,973)

- 바이든 대통령의 2.2조 달러 인프라 부양책 발표와 백신 보급 가속화에 의한 미국 경기 반등 기대에 힘입어 상승

주요 주가

		연간			분기				월간			
		2018	2019	2020	20.2/4	3/4	4/4	21.1/4	20.12월	21.1월	2월	3월
국내 증시	KOSPI	2,041	2,198	2,873	2,108	2,328	2,873	3,061	2,873	2,976	3,013	3,061
	KOSDAQ	676	670	968	738	848	968	956	968	929	914	956
해외 증시	(선진국)MSCI DM	1,884	2,358	2,690	2,202	2,367	2,690	2,812	2,690	2,662	2,727	2,812
	(신흥국)MSCI EM	966	1,115	1,291	995	1,082	1,291	1,316	1,291	1,330	1,339	1,316
	(미국)S&P500	2,507	3,231	3,756	3,100	3,363	3,756	3,973	3,756	3,714	3,811	3,973
	(일본)Nikkei225	20,015	23,657	27,444	22,288	23,185	27,444	29,179	27,444	27,663	28,966	29,179
	(유럽)Eurostoxx50	3,001	3,745	3,553	3,234	3,194	3,553	3,919	3,553	3,481	3,636	3,919
	(중국)상해종합지수	2,494	3,050	3,473	2,985	3,218	3,473	3,442	3,473	3,483	3,509	3,442
은행 주	우리금융	n.a.	11,600	9,730	8,810	8,580	9,730	10,110	9,730	8,800	9,580	10,100
	KB금융	46,500	47,650	43,400	33,950	37,550	43,400	56,200	43,400	40,300	43,800	56,200
	신한금융	39,600	43,350	32,050	28,750	27,600	32,050	37,450	32,050	30,650	32,950	37,450
	하나금융	36,250	36,900	34,500	27,000	28,100	34,500	42,800	34,500	32,650	37,050	42,800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Bloomberg

* 동 보고서는 연구원들이 신뢰할만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배포되는 조사분석 자료입니다. 동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시황에 대한 예측 또는 금융시장지표 전망 등)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 시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